

예술인들 재능나눔, 문화시민 키운다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6) 문화는 '나가 아닌 '우리'

'희망필통' 청소년 등에 무료 공연·악기 교육

예술인-시민 소통하며 문화 바이러스 확산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 인근에 있는 카페 '큐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 나온다.

(사)희망필통(대표 김수진) 주최로 '목요 힐링 카페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소규모 앙상블 5개 팀이 돌아가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들려주는 행사다. 희망필통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취지다. 공간은 현악기 공방을 운영 중인 마이스터 박현진(여·36)씨가 무료로 제공했다. 박씨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또 희망필통은 학교 밖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매주 1차례 3시간씩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을 가르치고, 광산구지역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림같은 기타소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타를 가르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문예회관에서 정기 공연도 열 계획이다.

희망필통 회원 90%는 음악인들이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이용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악기 연주나 만드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희망필통의 사례는 문화를 모르는,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소통노력이다. 즉, 미술인과 음악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재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문화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술가들이 단순히 고급 문화를 창

작하는 것만으로는 문화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미술관과 공연장에서만 보여주는 문화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예술인과 시민이 소통하면서 문화를 보고, 듣고, 만지고, 즐길 수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예술인들이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남구 노대동에는 특별한 독서 공간이 있다. 한국 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이자 작은도서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정봉남(여·46)씨가 주민들과 함께 만든 책 문화 공간 '봄'은 마을 주민 누구나 편한 시간에 찾아와 책을 읽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취지에서 만든 공간이다.

정봉남씨가 2000여 권이 넘는 책을 기부하고, 카페 디 마레 대표인 강성철(46)씨가 공간을 제공했다. 주민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 20권을 가져오면 자신의 이름표를 붙인 책장을 분양해 주기도 한다. 또 '봄'은 광주지역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컨설팅도 돕고 있다. 공간이 활성화 되면 티벳 북빠어린이 도서관과 중국 훈춘소학교에 책을 보내줄 예정이다.

동구 금동, 서구 풍암동·처평동, 북구 용봉동,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5곳의 재능기부센터에서도 예

술인들의 재능기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바이올린, 오카리나, 기타, 장구 등 악기를 비롯해 스케치, 공예, 도예 등을 작가, 학원장 등이 직접 가르친다.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와 자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희망필통 김수진(여·40) 대표는 "광주지역에는 음악인은 많지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취미로 음악을 접하려는 시민들은 많지만 이들을 가르쳐줄만한 음악인이 없는 점이 아쉬워 올해 1월 희망필통을 만들게 됐다"며 "예술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청소년들이 (사)희망필통 '쿠니어 청소년 실내악단' 프로그램을 통해 악기를 배우고 있다.

(사)희망필통 제공

여성작가들 '창조의 눈'

은암미술관 다음달 6일까지 특별전

은암미술관은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광주·전남 여성작가회 특별전 '창조의 눈'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개성 있는 작품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옥란, 김귀덕, 박성휘, 변경섭씨 등 4명의 여류작가가 참여한다. 자신들의 작품세계를 다시 성찰하고 새로운 창작 세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전시 주제를 '창조의 눈'으로 정했다.

추상과 반추상 작업으로 인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기옥란 작가는 '문명의 흐름과 만남, 제3의 지평, 그리고 존재와 교감'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문명의 흐름과 만남이 빚어내는 창조적 지평을 작품에 표현했다.

큰 꽃과 여인을 소재로 파스텔톤 컬러 작업을 계속 해온 김귀덕 작가는 민들레 시리즈를 전시한다. 생명력이 강한 민들레 꽃을 단순하게 표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

박성휘 작가는 지혜로운 인간의 전형을 여성신화를 통해서 표현했고, 변경섭 작가는 무수한 작은 점으로 삶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지난 1982년 만들어진 광주·전남 여성작가회



기옥란 작 '나의 아니무스'

는 해마다 작품성 높은 회원을 추천해 특별전을 열고 있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소년·소녀들의 음악 하모니

광주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내일 문예회관

광주청소년교향악단 10번째 정기연주회가 6월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초당대 김연주(사진) 교수가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청소년교향악단은 지난 2009년 창단, 결실 아동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회를 열어왔다.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아' 서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 베버의 '심포니 리플렉션' 등이다. 교향악단에서 1바이올린

수석을 맡고 있는 차수현(철단고)양이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 1악장을 협연하며 테너 임영빈(서강중 교사), 소프라노 김영실(호남대 외과교수), 색소폰 연주자 김성훈씨가 '보리밭', '신아리랑', '시네마 천국' 등을 들려준다.

문의 010-5648-65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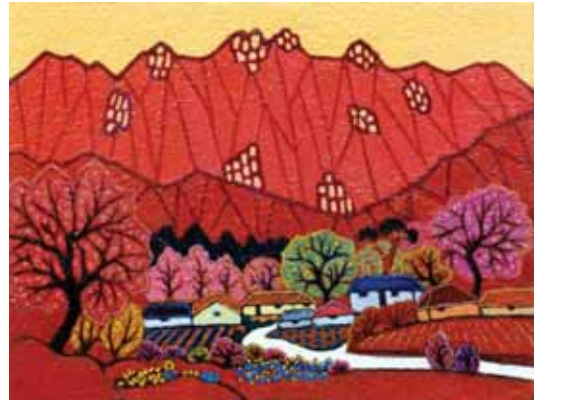
'시간 속의 나의 노래'

이신자전 6월 5일까지 무등갤러리

서양화가 이신자씨가 다음달 5일까지 광주시 동구 궁동 무등갤러리에서 '시간 속의 나의 노래'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봄의 노래', '무등산', '봄이 오는 길목' 등 화사한 색감으로 남도의 풍경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선과 면을 가르는 조형성과 색감이 두드러지는 것들이다. 때론 문학적인 감수성을 엿보이게 하는 화풍도 있다.

'아름다운 율령도', '인도 바자르', '영원한 우리의 독도' 등 작품은 현장 스케치를 마다하지 않는 작가의 열정이 묻어난다. 이씨는 "아름다운 행복, 그 느낌을 대상으로 단순화하고 색면을 분할하고, 또 한번의 붓질로 겹겹이 쌓아올려 나의 자유로운 추억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전국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중국 재외동포 문화 예술대전 운영위원, 목우회 공모전 이사,



'봄의 노래'

광주사생회 회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2-236-25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앙으로 최고의 영어교육을, 필리핀에서 세계로 -

CBS 필리핀 영어캠프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캠프

- 일대일 수준별 집중 영어교육
- 1일 8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 신앙훈련을 겸한 영어연수
- 안전하고 수준 높은 생활관리 시스템
- 필리핀 주요명소 관광 및 문화체험
- 레벨 테스트 후 레벨별 수업진행

영어연수 모집요강

-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 연수기간
 - 2013년 7월7일 ~ 8월17일 (6주)
 - 2013년 7월21일 ~8월17일 (4주)
- 연수비용
 - 6주:380만원 / 4주:260만원 (15세미만 입국비용, 공항세, 항공료 별도)
 - 포함내역: 숙식비/관광 및 특별활동비/수업료/교재비/비자연장비
- 특전 : 형제, 자매 등록시 5%DC

CBS 기독교 광주 방송 필리핀 영어캠프

상담문의 062-376-8500 // 062-376-8501

www.cbaseduph.co.kr